경기도 사랑,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지정 경기도 국어문화원】

2017년 경기도 국어책임관과 한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자료

□ 일시: 2017년 10월 13일(금) 오후 1시 50분 ~ 5시
□ 장소: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컨퍼런스홀 101호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협력 기관: 경기도 문화정책과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경기도 사랑,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지정 국어 문화원】

2017년 경기도 국어책임관과 한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자료

- ☐ 일시: 2017년 10월 13일(금) 오후 1시 50분 ~ 5시
- ☐ 장소: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컨퍼런스홀 101호
-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 주관: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 협력 기관: 경기도 문화정책과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2017년 경기도 국어책임관과 한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 순서와 내용

사회: 백경미(한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시 간	연찬회 일정
13:50~14:10	등록 및 개회
14:10~14:15	인사 (김태경 /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원장)
14:15~14:20	축사 (정하미 /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학장)
14:20~14:40	'한글날특집' KBS도전골든벨 경기지역 예선 결과 시상식 '한글날 맞이' 다듬은 말(순화어) 공모전 및 외국인 글쓰기 공모전 시상식
14:40~14:50	휴식 및 교류의 시간
14:50~15:05	특강 : 국어책임관 제도 소개 (신능호 / 문화체육관광부)
15:05~15:20	특강 :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소개 (백경미 /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15:20~16:10	특강 : 보도자료 오류 사례 및 작성 방법 (임유종 /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
16:10~16:50	전체 토의 : 경기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어문화원의 협력, 발전 방안
16:50~17:00	폐회 및 기념 사진촬영 등

차례

□ 국어책임관 제도 소개 ····· 1

□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소개 ····· 12

□ 보도자료 오류 사례 및 작성 방법 ····· 21

□ 전체 토의 ····· 40

2017 경기도
국어책임관 ·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국어책임관 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신능호 국어전문관

문화체육관광부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책임관이란?

국어책임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책임관의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2017. 9. 22.)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책임관 수(2017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1476명(중앙 48명 + 소속 1428명)

지방자치단체 243명(광역 17명 + 기초 226명)

2017년 9월 말 기준 **총 1719명**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누가 국어책임관이 되는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1. 국어책임관 제도 안내

국어전문관

국어전문관

부족할 수도 있는 국어책임관의 국어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국어 전문 인력

국어전문관이 없다면 내가 국어 전문가가 되자

2 국어책임관의 역할

2. 국어책임관의 역할

국어책임관의 임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리스크	→	위험 요소
인터랙티브	→	쌍방향
팸투어	→	(사전) 홍보 여행
VR	→	가상현실(VR)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자체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전문용어 및 행정용어 순화 + 정책 · 사업명 순화

지나친 외래어 · 외국어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지양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알기 쉬운 용어의 보급

전문용어 순화 자료집 발간

전문용어 순화 사례 누리집 게시

소속 · 산하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정확한 문장 사용 장려

문장의 정확성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준수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비문) 발생 주의

2. 국어책임관의 역할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

국어진흥조례 제정

총 72곳 제정(광역 14곳 + 기초 58곳)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김포시, 여주시, 성남시, 포천시, 연천군, 이천시, 안양시

2. 국어책임관의 역할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시행

문화재 안내문 언어 사용 실태 점검

간판 개선 사업 등 언어경관 개선

비문해자를 위한 한글교실 운영

지역어 보존 사업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

공무원이 공무로 사용하는 언어 = 공공언어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쉽고 바른 공공언어 = 국민들이 누려야 할 인권

2. 국어책임관의 역할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온라인 교육(국립국어원)

국어 관련 능력 시험 응시 확대

직원 개개인의 쉽고 바른 공공언어에 대한 관심

2. 국어책임관의 역할

바른 성명의 로마자 표기법 확산

홍길동

Hong Gildong

Hong Gil-dong

Hong, Gildong

Hong Gil Dong

Gildong Hong

HONG GILDONG

3 도움받을 수 있는 곳

3.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국어대사전/우리말샘

공공언어 지원

정확한 외래어 표기 및 순화어 찾기

온라인 가나다(가나다 전화: 1599-9979)

3.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지역별 국어문화원

국어문화원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 기관. 현재 전국에 20곳 운영 중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소개

백경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차례

1. 설립근거와 목적
2. 한국어문화원 조직과 구성원
3. 한국어문화원 연혁과 주요 사업

설립 근거

국어 기본법 제24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에 의거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이 경기도 지역의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됨.

국어기본법 제24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전국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17년 10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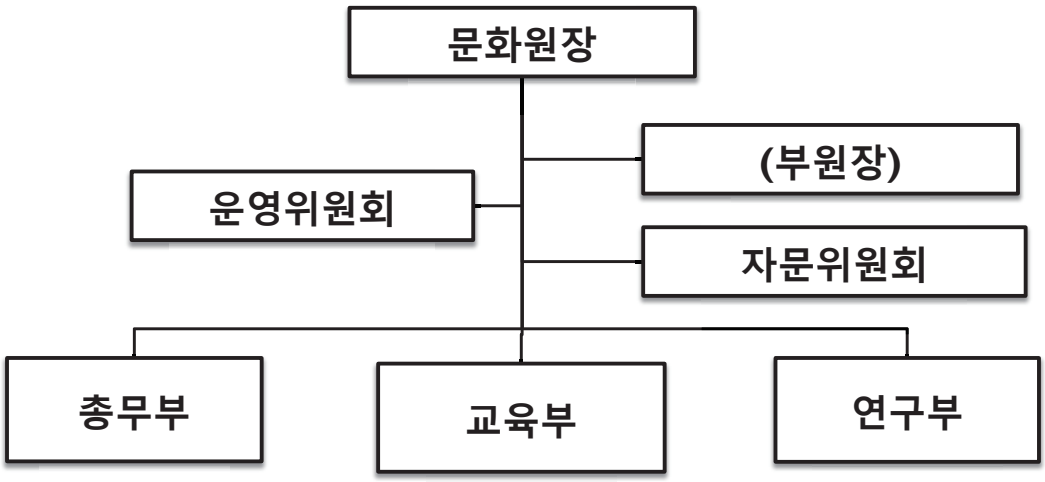
합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20	4	1	1	1	1	1	1	1	1	3	2	2	1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설립 목적

경기도 지역의 국어생활 문화를 연구하고 발굴, 보존, 보급하며, 지역 주민과 관공서•기업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국어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표준 어법을 계도, 교육, 상담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생활을 선도하고 국민의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한국어문화원 조직



4

한국어문화원 구성원

직위	이름
원장	김태경 (한양대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운영위원	이필영 (한양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이상호 (한양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이재복 (한양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차혜영 (한양대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경원 (한양대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이강민 (한양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정대호 (한양대 영미언어문화학과 교수)
	김경희 (한양대 프랑스언어문화 교수)
	김한우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송지성 (한양대 디자인학과 교수)
	차정숙 (경기도 국어책임관/문화정책과 과장)
임원	임유종(총무부장)
	백경미(교육부장)
	이소연(연구부장)

5

한국어 문화원 주요 사업

상담
- 한국인(초중고대학생, 주민 등)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자녀 등)
- 기관 상담(관공서, 학교, 회사 등)

교육
- 내국인 대상 한국 언어 문화 무료 교육 실시
- 외국인 대상 한국 언어 문화 무료 교육 실시
- 경기도 한국어 교사 연수회 실시
-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운영
-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회

연구
-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언어 개선 방안 연구
- 경기도 보도 자료 언어 개선 사업
- 경기도 문화재 안내판 언어 개선 사업
- 경기도 관광 홍보물 언어 개선 사업
- 대학 누리집 용어순화 사업
- 외국인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행사
- 한국어문화원 창립 기념 세미나
- 국어 순화 경시 대회
- 외국인 언어 경시 대회
- 내국인 글쓰기 대회
-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공모전
- 한국 언어 문화 체험 답사

6

주요 연혁 2010년

2010년 4월	<한양대학교 한국어 문화원> 설립을 위한 기획단 출범
2010년 6월	<국어기본법>에 의거 국어 문화원으로 지정
2010년 7월	경기도 관공서 누리집 용어 순화 사업 실시
2010년 7월	[재외동포재단 주최]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집중 워크숍 교육 운영(5주)
2010년 8월	[재외동포재단 주최]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워크숍 교육 운영(1주)
2010년 9월	제5회 전국 국어대회 황금사전 선발대회 지역 예선 개최
2010년 9월	내국인 대상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군포시)
2010년 10월	외국인 대상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2010년 10월	문화원 창립 기념 대회 주최 (주제: 한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2010년 11월	한국어 문화 체험 행사(외국인 학생 대상) 주최
2010년 11월	대학생 국어 순화 경시 대회 주최
2010년 12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주최

7

주요 연혁 2011년

2011년 2월	제1회 경기도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회 주최 (110명 대상 1박 2일)
2011년 2월	대학 누리집 용어 순화 사업 실시
2011년 4월-11월	경기도 관공서 누리집 용어 순화 사업 실시
2011년 7월-8월	[재외동포재단 주최]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집중 연수회 주관(5주)
2011년 7월-8월	[재외동포재단 주최]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연수회 주관(2주)
2011년 8월	[재외동포재단 주최]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회 주관(1주)
2012년 10월	제6회 전국 국어대회 황금사전 선발대회 경기 지역 예선 개최
2011년 10월-11월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8

주요 연혁 2012년

2012년 2월	제2회 경기도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회 주최 (80명 대상, 1일)
2012년 3월-11월	경기도 관공서 누리집 용어 순화 사업 실시
2012년 7월-8월	[재외동포재단 주최]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집중 연수회 주관(5주)
2012년 9월-10월	경기도민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2012년 10월	제7회 전국 국어대회 황금사전 선발대회 경기 지역 예선 개최
2012년 10월	제3회 경기도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회 주최 (60명 대상, 1일)
2012년 11월	경기도 국어책임관과의 공동 연찬회

9

주요 연혁 2013년

기본 운영 사업

2013년 2월 -11월	경기도 문화재 안내판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2013년 3월-11월	경기도 관공서 누리집(홈페이지) 용어 순화 사업 실시
2013년 7월-8월	[재외동포재단 주최]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회 주관(200명)
2013년 2월-10월	경기도민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 내국인 대상 1강좌 - 외국인 대상 1강좌
2013년 10월	제 4회 경기도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회 개최
2012년 2월-10월	경기도 국어책임관과의 공동 연찬회

국어 책임관 지원 공모 사업

2013년 4월 -11월	경기 지역 관광 홍보 매체물의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2013년 국어 책임관 지원 공모 사업 최우수 사업 선정)

10

주요 연혁 2014년

기본 운영 사업

경기도 문화재 안내판 언어 개선 사업	– 과천, 광명, 안산, 안양 지역의 문화재 안내판 대상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경기 지역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운영
경기도 공공문서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 경기도 누리집의 보도 자료 30여 건 대상
한국어 문화 교실 I	– 고려인 한글야학 <너머> 학생 36명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한국어 문화 교실 II	– 새터민 학생 10여 명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제5회 경기도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회 개최	– 경기 지역의 한국어 교사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회 개최
경기도 국어책임관과의 공동 연찬회	– 경기 지역 국어책임관의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 기반 조성

국어 책임관 지원 공모 사업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2014년 국어 책임관 지원 공모 사업 선정)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언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함.

주요 연혁 2015년

경기도 지역 관광 홍보물 언어 개선 사업	– “경기관광포털”에서 선정한 ‘경기명소 100선’에 대한 누리집 게재 홍보물을 대상
경기도 청소년 언어 개선 사업: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 경기 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운영 (하남시 덕풍 초등•중등학교에서 실시 예정)
경기도 공공문서 언어 개선 방안	– 경기도 누리집의 보도 자료 대상
한국어 문화 교실 I	– 고려인 한글야학 <너머> 학생 36명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한국어 문화 교실 II	– 새터민 학생 10여 명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제5회 경기도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회 개최	– 경기 지역의 한국어 교사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회 개최
경기도 국어책임관과의 공동 연찬회	– 경기 지역 국어책임관의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 기반 조성

주요 연혁 2016년

경기도 지역 관광 홍보물 언어 개선 사업	– “경기관광포털”에서 선정한 ‘경기명소 100선’에 대한 누리집 게재 홍보물을 대상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 경기 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운영
경기도 공공문서 언어 개선 방안	– 경기도 누리집의 보도 자료 대상
한국어 문화 교실	– 새터민 학생 10여 명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문화 교실 운영
우리말 사랑 글쓰기 대회	– 도민 대상의 국어 사랑 수필 경연 대회
한글날 특집 KBS 도전골든벨 행사 지역 예선	– 경기도 고등학생 대상의 우리말 경시 대회
외국인 주민 글쓰기 대회	–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 생활 체험 수기 대회
제6회 경기도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회 개최	– 경기 지역의 한국어 교사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회 개최
경기도 국어책임관과의 공동 연찬회	– 경기 지역 국어책임관의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 기반 조성

13

2017년 주요 사업

기본 운영 사업

국어 상담 교실	- 방문과 본 기관의 누리집 <알고싶어요>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종합적인 국어 문화에 대한 상담을 실시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 경기 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바른말 교실 운영
경기도 공공문서 언어 개선 방안	- 경기도 누리집의 보도 자료 대상
한국어 문화 교실(초급)	-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한글날 특집 KBS 도전골든벨 행사 지역 예선	- 경기도 고등학생 대상의 우리말 경시 대회
제8회 경기도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회 개최	- 경기 지역의 한국어 교사 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회 개최
한글날 맞이 다듬은 말(순화어) 공모전	- ”아름다운 우리말 쓰기”라는 주제로 순화어를 공모
한글날 맞이 외국인 글쓰기 공모전	-”한국문화, 한국어에서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글쓰기
경기도 국어책임관과의 공동 연찬회	- 경기 지역 국어책임관의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 기반 조성

14

2017년 주요 사업

2017 경기도청 국어문화진흥사업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	•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자녀,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 주민의 구체적 언어 사용 실태와 문제점 파악 • 학습자 변인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방안 마련

2017 청소년 꿈나무 말하기 멘토링 지원 사업

말하기 축제 및 말하기 주제 공모전	• 경기 지역 중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언어 개선 사업 • 말하기 대회, 화법 전문가의 교육 및 멘토링 • 말하기 주제 공모전

15

2017년 주요 사업

2017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지원 사업(공공언어 개선 부문) 공동 추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	• 고속로도 휴게소의 음식 메뉴 표기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16

감사합니다!

17

보도자료 오류 사례 및 작성 방법

임유종(한양대 한국언어문학과)

차례

1. 서론

2. 어휘

3. 문장

4. 글의 구성과 단락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여기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의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살피기로 한다. 경기도 공공문서의 하나인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그 언어 사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공공문서는 일반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보도 자료의 경우는 언론을 대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일반 언중들에게도 그 파급력이 적지 않다. 보도 자료가 잘못된 언어 사용을 보이면 언중들의 언어생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 기관의 보도 자료가 모범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4)에서는 쉬운 공공언어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영역	요소	항목
소통성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읽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작성하였는가?
	정보성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명료하게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양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정보의 배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 권위적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을 쓰지 않았는가?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	어휘를 적합하게 선택하였는가? 문장을 문법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단락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는가?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2. 어휘

2.1 띄어쓰기

우선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명사구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를 보자.

(1) 가. 가족체험 ➡ 가족 체험
나. 개방행사 ➡ 개방 행사
다. 개인부문 ➡ 개인 부문
라. 거리공연 ➡ 거리 공연
마. 현장체험 ➡ 현장 체험
바. 과다사용 ➡ 과다 사용
사. 관광명소 ➡ 관광 명소
아. 국비지원 ➡ 국비 지원
자. 기본계획 ➡ 기본 계획
차. 기본소양 ➡ 기본 소양
카. 대량생산 ➡ 대량 생산
타. 도민의견 ➡ 도민 의견
파. 문화공연 ➡ 문화 공연
하. 행사기간 ➡ 행사 기간

위의 예들은 명사가 이어진 명사구여서 선, 후행 명사 사이를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경우이다. (1)은 얼핏 보면 합성 명사나 전문 용어로 보아 붙여 써도 무방할 것처럼 보이지만, 띄어 써야 하는 경우들이다. 사실 이런 명사구 띄어쓰기는 판단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합성어(합성 명사)의 경우는 일단 사전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만, 전문 용어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1)의 예들은 합성 명사도 아니고 전문 용어로 보기도 어려운 경우들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우선 합성 명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전이다. 합성 명사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선후행어의 분리성이나 의미 변화와 같은 구분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다.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붙여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하는 것이다.[1]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둘째로, 전문 용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렵다. 사실 이런 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경우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잘 모를 경우에는 일반적인 띄어쓰기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간편하다. 전문 용어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 작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

1) 사전을 찾아보면 표제어가 '-'로 연결된 경우가 있고, '^'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 전자는 '지난-날'과 같이 표시된 경우로 항상 붙여 써야 한다. 후자는 '학교^교육'과 같은 경우로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는 의미이다. 후자의 경우 띄어 쓰든 붙여 쓰든 일관성 있게 써야 한다. 곧 한 편의 글이나 문서에서 붙여 쓴 경우도 있고 띄어 쓴 경우도 있으면 안 된다. 처음에 '학교교육'과 같이 붙여 쓰기 시작했으면 그 글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붙여 써야 하고, '학교 교육'과 같이 띄어 썼으면 끝까지 띄어 써야 한다.

다음은 의존 명사를 띄어 쓰지 않은 경우들을 보기로 하자.

(3) 가. 경기도내 ➡ 경기도 내
나. 50여명 ➡ 50여 명
다. 김상인씨의 ➡ 김상인 씨의
라. 소통하는데 있다 ➡ 소통하는 데 있다
마. 즐길거리 ➡ 즐길 거리
바. 왕실과 외척간 ➡ 왕실과 외척 간

위의 예들은 의존 명사를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경우들이다.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의존 명사 띄어쓰기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다)의 경우는 자주 나타나는 오류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라)의 경우는 연결 어미로 사용된 경우인지 '관형형 어미+ 의존명사' 구성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가령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와 같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말할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의 경우에는 붙여 써야 한다. 그런데, (3라)와 같이 '데'가 '장소, 일, 경우' 등의 의미를 드러내는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소통하는 데(에) 있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데'가 의존 명사로 쓰인 예를 몇 가지 들면 아래와 같다.

(4) 가. 의지할 데 없는 사람/예전에 가 본 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지금 가는 데가 어디인데?/그가 사는 데는 여기서 멀다. ('곳'이나 '장소'의 뜻).
나.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사람을 돕는 데에 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는 듯 전공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일'이나 '것'의 뜻).
다.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 데나 쓴다. ('경우'의 뜻).

(3마)의 경우는 '관형어(형용사+ 관형형 어미)+ 의존 명사' 구성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즐길거리'를 붙여 쓴 이유는 아마도 '먹거리, 볼거리'와 같은 경우들을 합성 명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이 말도 합성 명사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먹거리'나 '볼거리'는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즐길거리'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3바)의 경우, '동안'의 의미를 지닌 '-간'은 접사이므로 '10일간'과 같이 붙여 써야 하지만, '관계'의 의미를 지닌 '간'은 의존명사이므로 '부모와 자식 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아래의 예는 접사를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경우이다.

(5) (가) 사업 당 ➡ 사업당 (※ '-당'은 '마다'의 뜻을 지닌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나) 7월 쯤 ➡ 7월쯤 (※ '-쯤'은 '정도'의 뜻을 지닌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다) 벚꽃 맞이 ➡ 벚꽃맞이 (※ '맞이'는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함.)
(라) 제출 했던 ➡ 제출했던 | 엄단 하겠다 ➡ 엄단하겠다 | 노력 하겠다 ➡ 노력하겠다 | 미착용 했던 ➡ 미착용했던
(마) 3일 간 ➡ 3일간| 3주 간 ➡ 3주간

(5가)의 '당'은 '-당'은 '마다'의 뜻을 지닌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5나)의 '쯤' 역시 '정도'의 뜻을 지닌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5다) '맞이'도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5라)의 '-하다' 체언과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5마)의 '간'은 '서울과 부산 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과 같이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하지만, '이틀간'과 같이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붙여 써야 한다.

이밖에도 이런저런 띄어쓰기 오류들이 발견된다. 다음 예를 보자.

(6) 가. 지난해 보다 ➡ 지난해보다
나. 안내받다 ➡ 안내 받다 | 신청없이 ➡ 신청 없이 | 관심있는 ➡ 관심 있는
다. 타작물 ➡ 타 작물
라. 따라하고 ➡ 따라 하고
마. 대기질 ➡ 대기 질
바. 그 동안 ➡ 그동안
사. 위촉식후 ➡ 위촉식 후

(6가)의 '보다'는 비교의 의미를 지닌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보다 더 높이'와 같이 쓰이는 부사 '보다'와는 다르다. (6나)는 '명사+동사' 구성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안내받다, 신청없다, 관심있다'와 같은 복합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6다)는 '관형사+명사' 구성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6라)의 '따라하다'는 복합동사가 아니고 '따르/어간+어(서)/연결어미+하다/동사' 구성이므로 '따라(서) 하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6마)와 (6사)는 합성 명사가 아니라 명사+명사 구성인 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지금까지 띄어쓰기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오류 유형으로 보면 역시 띄어쓰기가 잘못된 사례가 가장 많다. 특히, 명사류가 반복되는 경우의 띄어쓰기 오류가 가장 많다. 사실 명사구 띄어쓰기는 전문가들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전 검색만으로도 많은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으므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사가 반복되는 경우에 한 편의 글 속에서도 띄어쓰기가 일관되지 못한 문제도 지적해 둔다. '단체상부문-단체상 부문', '자전거안전모-자전거 안전모', '조성계획 ➡ 조성 계획' '참여농가-참여 농가'와 같이 한 편의 글에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2.2 비표준어

다음은 띄어쓰기 이외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 먼저 비표준어를 사용한 경우들이 있다.

(7) 가. 낚시객 ➡ 낚시인 | 낚시꾼 | 낚시 여행객
나. 성수철 ➡ 성수기 | 성어기
다. 형사처벌 ➡ 형사처분

(7가)의 경우는 비표준어이다. 아마도 '낚시꾼'의 '낚시'와 '여행객'의 '객'을 합쳐서 만든 것

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없는 비표준어이다.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낚시인, 낚시꾼, 낚시 여행객'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7나)의 '성수철' 역시 비표준어이다. 아마 '성수기'의 '성수'와 '여름철'의 '철'을 합친 표현으로 보이는데, '성수기'나 '성어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다)의 '형사처벌'는 북한식 표현이므로 '형사처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2.3 외국어 사용

한편, 외국어 사용이 많은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용이성과 같은 소통성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8) 가. 다운로드 ➡ 내려받기
나. 로컬푸드 ➡ 지역 먹을거리 | 향토 먹을거리
다. 리모델링 ➡ 새단장 | 구조 변경
라. 마스터 플랜 ➡ 종합 계획 | 기본 계획 | 기본 설계
마. 메시지 ➡ 성명서 | 교서 | 전갈 | 알림(말)
바. 메신저 ➡ 쪽지창
사. 배너 ➡ 막대 광고 | 띠 광고 | 현수막 (광고)
아. 버스킹 ➡ 길거리 공연
자. 보드판 ➡ 게시판
차. 애니메이션 ➡ 만화 영화
카. 이벤트 ➡ 기획 행사 | 행사
타. 인센티브 ➡ 성과급 | 유인책 | 특전
파. 첼리스트 ➡ 첼로 연주자
하. 홈페이지 ➡ 누리집

위와 같은 외국어 표현들은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외국어 표현들의 순화어는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전-국어지식] 영역에서 [다듬은 말(순화어)]을 찾아가면 순화어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순화어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쓰는 외국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순화어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 매우 유용하다.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우리말과 외국어를 섞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도 우려가 된다.

(9) 가. 버스킹공연
나. 메인 정원
다. 미니화분
라. 쌀쿠키
마. 체험부스

사실 이러한 외국어 사용 양상은 많은 경우에 보도자료 작성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외국어 사용 비율이 높은 사회 전반의 경향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 하겠다. 정책이나 단체 등을 만들 때 외국어로 이름을 지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외국어 사용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4 외래어 표기

아래와 같이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경우들도 경계해야 한다.

(10) 가. 레파토리 ➡ 레퍼토리
나. 챌리스트 ➡ 첼리스트

위의 경우는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써야 한다. 이런 경우들은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흔히 실수하는 몇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 가. 리플렛 ➡ 리플릿
나. 메뉴얼 ➡ 매뉴얼
다. 브로셔 ➡ 브로슈어
라. 서포터즈 ➡ 서포터스
마. 컨텐츠 ➡ 콘텐츠
바. 컨퍼런스 ➡ 콘퍼런스
사. 팜플릿 | 팜플렛 ➡ 팸플릿

2.5 외국 문자 본문 노출

아래와 같이 외국 문자를 본문에 노출시키는 것은 삼가야 할 부분이다. 이것 역시 용이성과 같은 소통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12) 가. 道·市합동점검
나. 道, 자전거안전모 착용 생활화 위한 종합대책 마련

위의 예를 보면 한자가 본문에 노출되어 있다. 국어 기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외국 글자를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괄호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2.6 어려운 어휘

어려운 어휘들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13) 가. 대리청정 ➡ 대리청정(왕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세자나 세제가 왕 대신 정사를 돌보는 것)

나. 비닐피복 ➡ 비닐 덮기 (※ '거죽을 덮어 씌우다'의 뜻을 지닌 '피복'의 순화어는 '덮기'이다.)

다. 생력 ➡ 생력(기계 등으로 노동력을 줄임)

라. 연시회 (※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 듯한데,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마. 예찰 ➡ 예찰(睿札) (※ '편지'의 의미를 지닌 '예찰'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어려운 말이다. 사전에는 '미리 살피다'는 뜻을 지닌 '예찰(豫察)'만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다못해 괄호 안에 한자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 저감(낮추어 줄임.)

사. 청사 내와 ➡ 청사 안과

위의 예들은 다소 어려운 어휘들이 사용된 경우들을 일부 보인 것이다. 불가피하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쉽게 풀이해 주거나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문장

문장 구성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 우선, 인용격 조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가 많다.

(1) 원문: 지난 3월 첫 번째 가족행복캠프에 참여한 김 모 씨(남, 용인 거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돼 많은 도움이 많이 됐다."며 "스마트폰 없이도 온 가족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2) 간접 인용: 지난 3월 첫 번째 가족행복캠프에 참여한 김 모 씨(남, 용인 거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돼 많은 도움이 많이 됐다며 스마트폰 없이도 온 가족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3) 직접 인용: 지난 3월 첫 번째 가족행복캠프에 참여한 김 모 씨(남, 용인 거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돼 많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라며 "스마트폰 없이도 온 가족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1)의 원문을 보면 직접 인용처럼 따옴표를 붙여놓고 인용 조사는 간접 인용에 사용되는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간접인용일 경우에는 조사 "-고"를 사용하고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직접인용일 경우에는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 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표현의 어미 등을 바꾸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2)처

럼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꾸거나, (3)처럼 직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1)의 원문은 아마도 기사의 특성상 인용 부분을 눈에 잘 띄게 하면서 지면을 줄이기 위한 결과로 보이는데, 옳은 쓰임이 아니다.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래 예를 보자.

(1) 가. 효명세자는 조선의 제 23대 왕인 순조의 장남으로 18세 때 부왕 순조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을 하며 세도정치를 억제하고 왕정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노력하다 21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나. 효명세자는 조선의 제 23대 왕인 순조의 장남이다. 18세 때 부왕 순조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을 하며 세도정치를 억제하고 왕정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21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1가)의 원문은 문장이 다소 긴 편인데, 중간에 쉼표 등도 없어서 읽어 내려가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1나)와 같이 문장을 나누어 주기만 해도 읽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쉼표와 같은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래의 예를 보자.

(1) 가. 경기도 민원모니터는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도 정책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각종 주민 불편이나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제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나. 경기도 민원모니터는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도 정책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각종 주민 불편이나,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제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1가)의 원문을 보면 중간에 쉼표 등이 없기 때문에 '주민 불편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과 같은 구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1나)와 같이 쉼표를 사용하면 적절한 수식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지나친 생략으로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의미 전달이 불충분해지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1) 가. 이번 점검에서는 ▲인명안전 설비기준 준수 여부 ▲구명.소화설비 비치여부 ▲어선위치 발신 장치 작동 여부 ▲낚시어선 승선정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승선자 명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 이번 점검에서는 ▲인명안전 설비기준 준수 여부 ▲구명.소화설비 비치 여부 ▲어선위치 발신 장치 작동 여부 ▲낚시어선 승선 정원 준수 여부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가)의 원문을 보면, 다른 항목들은 '-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성인데, '낚시어선 승선정원'과 '승선자 명부' 항목 등은 이런 내용이 생략되고 있어서 '승선 정원을 점검하고, 승선자 명부를 점검한다'는 구성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런 생략 부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온전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와 같이 어색한 문장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1) 가. 농산물 판매마당에서는 젊은농부들이 생산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쌀쿠키 그림그리기, 쌀비누 만들기, 미니화분 만들기, 곤충체험, 유가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나. 농산물 판매마당에서는 젊은농부들이 생산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쌀쿠키 그림그리기, 쌀비누 만들기, 미니화분 만들기, 곤충체험, 유가공품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2) 가. 특히 현장에서 업무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5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나. 특히 업무담당자가 현장에서 일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5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1가)는 선행절은 능동 표현인데 후행절은 피동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어색하다. (1나)와 같이 선후행절 모두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가)의 원문 역시 '.... 초빙해 ...진행된다'와 같이 능동과 피동 표현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색하다. (2나)와 같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피동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의 예를 보자.

(1) 가. 경기도가 '제46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개인부문 대통령상 등을 포함 총 33점의 작품이 입상됨에 따라, 2년 연속 단체상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 경기도가 '제46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개인부문 대통령상 등을 포함 총 33점의 작품이 입상함에 따라, 2년 연속 단체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가)의 원문을 보면 '작품이 입상되다'와 같이 피동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나)의 '작품이 입상하다'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다음 예들은 동일 어미들이 반복되어 어색한 경우들이다.

(1) 가. 밭작물은 대부분 경사지 재배가 많고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기계 작업이 어려워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다.

나. 밭작물은 대부분 경사지 재배가 많고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기계 작업이 어렵기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다.

(2) 가. 온 가족이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어 고민 중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가족프로그램이 열린다.

나 .온 가족이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어 고민 중인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가족프로그램이 열린다.

(1가)의 원문은 '... 영세하여 기계 작업이 어려워...'와 같이 동일 형태의 어미가 반복되고 있어서 어색하다. (1나)처럼 표현을 바꾸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2가)의 원문은 '-을 위한 특별한'과 같이 관형형 어미가 반복되어 다소 어색하다. (1나)와 같

이 수정 보완해야 한다.

아래의 예는 적절한 조사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1) 가. '젊은농부 4-H! 농업을 새기고!, 나누고!, 지키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도내 4-H회원들의 연간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나. '젊은농부 4-H! 농업을 새기고!, 나누고!, 지키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4-H회원들의 연간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다. '젊은농부 4-H! 농업을 새기고!, 나누고!, 지키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도내 4-H회원들이 참여하여 연간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1가)의 원문을 보면 '이날 행사에 회원들의 성과를 공유한다'와 같이 되어 어색한 문장이 되어 버린다. (1나)와 같이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의 성과를 공유한다'나 (1다)와 같이 '이날 행사에 회원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한다'와 같은 구성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문장은 주술 관계 등 호응 관계가 잘못된 경우이다.

(1) 가. 경기도가 순조의 장남인 효명세자의 예찰 8통이 지난 4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나. 경기도가 순조의 장남인 효명세자의 예찰 8통을 지난 4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1가)의 원문은 '예찰 8통이 문화재로 고시했다'와 같이 되어 어색하다. '고시하다'는 동사는 '-을 -으로 고시하다'와 같이 목적어 등이 필요한 동사인데, 필요한 성분이 없어서 제대로 된 호응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나)의 '예찰 8통을 문화재로 고시했다'와 같이 수정 보완해야 한다. 아래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1) 가. 중산간지 논에 콩 재배를 규모화하고 전 과정 기계화 모델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노동력 91%, 비용 83%를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 중산간지 논에 콩 재배 규모를 크게 늘리고, 전 과정에 기계화 모델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노동력은 91%, 비용은 83%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1가)의 원문을 보면, '83%를'이라는 목적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어색하다. '규모화하다'라는 표현도 모호한 표현이다. 따라서 (1나)와 적절한 서술어 표현이 나타나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

4. 글의 구성과 단락

단락 구성이나 전체 글의 구성에서 불비한 경우들도 발견된다. 단락이나 글의 구성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단락과 전체 글 구성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보기로 한다. 다음 예를 보자.

벚꽃 야경부터 버스킹까지… 경기도청 벚꽃행사 8일 개막

○ 경기도청 벚꽃 맞이 개방행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열려
- 거리공연·클래식·국악 앙상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도지사 집무실 및 굿모닝하우스(舊 도지사 공관) 개방

[1] 경기도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청에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벚꽃 맞이 도청개방 행사가 열린다. (➡ 행사 개요)

[2] 경기도청사 일대는 청사 내와 인근 팔달산, 수원화성을 화려하게 수놓은 벚꽃으로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상춘객들이 다녀가는 벚꽃 감상 명소이다.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벚꽃 야경도 볼거리다. (➡ 행사 장소)

[3] 경기도는 이번 벚꽃 행사를 가족과 연인이 함께 체험하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프로그램 개요)

[4] 우선 개방 기간 동안 6개 버스킹존에서 통기타밴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이 진행된다. 각 구역마다 4~7개 팀이 공연해 벚꽃 개방행사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 프로그램 일부 소개)

[5] 9~10일 이틀에 걸쳐 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는 <비바, 라바!>, <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 <로포카폴리>, <드래곤 길들이기> 등 어린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하루 4회 상영한다. (➡프로그램 일부 소개)

[6] 이밖에도 미니드론 체험, 안전의식과 재난상황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119 안전체험도 준비됐으며, 도청 정문과 후문, 산책로 등 아름드리 벚꽃이 많아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에 포토존도 마련했다. (➡ 프로그램 일부 소개)

[7] 커피, 토스트, 컵밥, 치킨 등 푸드트럭 12대가 다양한 먹을거리도 선보인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 먹을거리 일부 소개)

[8] 경기도정 방향인 공유와 개방, 소통에 맞춰 도지사 집무실과 옛 도지사공관을 리모델링한 '굿모닝하우스'를 개방한다. (➡ 굿모닝하우스 행사 개요)

[9] 우선 도지사 집무실에서는 '오늘은 내가 도지사'를 콘셉트로 '경기연정'의 상징물인 연리지와 회의탁자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지사에 바란다'는 보드판이 설치돼 있어, 경기도에 바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 굿모닝하우스 행사 내용 일부 소개)

[10] '굿모닝하우스'는 정식 개장에 앞서 임시 개방된다. 굿모닝하우스에는 챌리스트

김해은의 해설을 곁들인 대중성 있는 클래식 공연이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다. 10일 오후 2시에는 경기도국악단 앙상블이 친근하면서도 흥겨운 레파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 굿모닝하우스 행사 내용 일부 소개)

[11] 이 밖에도 광역자치단체 상생협력을 위한 강원도 특산품 직거래장터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운영되며, 경기도 G마크 한우, 한돈, 시니어클럽, 중증장애인 생산품, 개성공단기업 제품 등 41개 부스도 운영된다. (➡ 기타 장터 소개)

[12] 한편,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행사기간 동안 청사 내 차량이 통제되며, 특히 9일과 10일에는 도청 후문사거리~청사 우회도로~도청오거리 구간 등 양방향 차량이 통제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 교통 안내)

[13]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인근 수원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세무서, 경인지방병무청, 소방안전협회경기지사, 영복여중(이상 9~10일), 수원여고(9일) 등 임시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 주차 안내)

위 글의 전체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행사 개요
[2] 행사 장소 소개
[3] 프로그램 개요
[4] 프로그램 일부 소개
[5] 프로그램 일부 소개
[6] 프로그램 일부 소개
[7] 장터 일부 소개(먹거리, 푸드트럭)
[8] 굿모닝하우스 행사 개요
[9] 굿모닝하우스 행사 내용 일부 소개
[10] 굿모닝하우스 행사 내용 일부 소개
[11] 기타 장터 소개(직거래 장터, 제품 판매장)
[12] 교통 안내
[13] 주차 안내

[1]과 [2]의 내용은 행사 일시, 장소 등 전반적인 소개 내용이다. [1]에는 일시, 장소 등이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고, [2]에는 장소에 관한 간단한 소개가 덧붙어져 있다. [3]부터 [6]까지는 행사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 [3]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개관 내용이고, [4]부터 [6]까지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다. [7]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푸드트럭 창업 부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 역시 프로그램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4]-[6]의 경우는 참가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8]-[10]에서는 올해 특별 프로그램인 '굿모닝하우스' 행사에 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8]에서는 올해에는 특히 '굿모닝하우스' 행사가 진행된다는 언급이 있고, [9]-[10]에서 그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11]에서는 기타 직거래 장터, 제품 판매장에 언급되고 있다. [12]에서는 교통 안내 정보, [13]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차 안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 구성은 다소 체계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우선 [1]과 [2]의 내용은 둘

다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합칠 가능성 있다. [3]에서부터 [6]까지는 모두 행사 프로그램에 관한 소개 내용이므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의 경우는 [3]-[6]의 체험 프로그램보다는 [11]의 직거래 장터, 제품 판매장과 성격이 더 유사하므로 [7]과 [11]을 통합시켜서 한 단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위치, 또한 [7]의 위치보다는 [11] 위치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8]-[10]의 '굿모닝 하우스' 행사의 성격이 체험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를 한 [3]-[6]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더 순리적인 연결이다. [12]-[13]은 모두 한 문장 단락 형식이기도 하고 크게 보면 교통편 안내라는 점에서 하나의 단락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같은 성격을 지닌 정보들을 일관성 있게 순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구성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사 개요
[2] 프로그램 안내
[3] 올해의 특별 프로그램 굿모닝하우스 행사 안내
[4] 먹거리, 장터 등 즐길 거리 안내
[5] 교통 및 주차 안내

[1]에서는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2]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3]에서는 올해의 특별 프로그램인 '굿모닝하우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4]에서는 체험 활동을 더 즐겁게 해주는 먹거리나 장터에 관한 소개를 한다. [5]에서는 교통편에 관하여 안내한다.

위와 같이 재구성하여 실제 보도 자료 글을 수정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경기도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청에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벚꽃 맞이 도청개방 행사가 열린다. [2] 경기도청사 일대는 청사 내와 인근 팔달산, 수원화성을 화려하게 수놓은 벚꽃으로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상춘객들이 다녀가는 벚꽃 감상 명소이다.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벚꽃 야경도 볼거리다. (➡ 행사 개요 소개)

[3] 경기도는 이번 벚꽃 행사를 가족과 연인이 함께 체험하며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했다. [4] 우선 개방 기간 동안 6개 버스킹존에서 통기타밴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이 진행된다. 각 구역마다 4~7개 팀이 공연해 벚꽃 개방행사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5] 9~10일 이틀에 걸쳐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는 <비바, 라바!>, <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 <로포카폴리>, <드래곤 길들이기> 등 어린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하루 4회 상영한다. [6] 이밖에도 미니드론 체험, 안전의식과 재난상황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119 안전체험도 준비됐으며, 도청 정문과 후문, 산책로 등 아름드리 벚꽃이 많아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에 포토존도 마련했다. (➡ 프로그램 안내)

특히, 올해에는 [8] 경기도정 방향인 공유와 개방, 소통에 맞춰 도지사 집무실과 옛 도지사공관을 리모델링한 '굿모닝하우스'를 정식 개장에 앞서 임시 개방하는 것도 흥미롭다. [9] 우선 도지사 집무실에서는 '오늘은 내가 도지사'를 콘셉트로 '경기연정'의 상

징물인 연리지와 회의탁자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지사에 바란다'는 보드판이 설치돼 있어, 경기도에 바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굿모닝하우스에는 챌리스트 김해은의 해설을 곁들인 대중성 있는 클래식 공연이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다. 10일 오후 2시에는 경기도국악단 앙상블이 친근하면서도 흥겨운 레파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 특별 프로그램 굿모닝하우스 행사 안내)

[11] 이 밖에도 광역자치단체 상생협력을 위한 강원도 특산품 직거래장터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운영되며, 경기도 G마크 한우, 한돈, 시니어클럽, 중증장애인 생산품, 개성공단기업 제품 등 41개 부스도 운영된다. [7] 커피, 토스트, 컵밥, 치킨 등 푸드트럭 12대가 다양한 먹을거리도 선보인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 먹거리, 장터 등 즐길 거리 안내)

[12] 한편,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행사기간 동안 청사 내 차량이 통제되며, 특히 9일과 10일에는 도청 후문사거리~청사 우회도로~도청오거리 구간 등 양방향 차량이 통제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13]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인근 수원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세무서, 경인지방병무청, 소방안전협회경기지사, 영복여중(이상 9~10일), 수원여고(9일) 등 임시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 교통 및 주차 안내)

위와 같이 재구성을 하면 같은 내용이 다른 단락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각각의 단락의 중심 내용이 좀더 명확해진다. 물론 위의 고친 글도 아주 이상적으로 보보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위의 정도라도 글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단락의 전개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위의 전체 구성을 살피는 과정에서도 이미 같은 단락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각기 다른 단락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대로 각기 다른 내용인데 같은 단락에 있어서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단락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2]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이런 점을 보기로 한다.

우선, 모두 한 문장 단락 형식으로 이루어진 보도자료들이 적지 않다. 다음 예를 보자.

[1]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2] 도는 8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민 대상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3] 공모 내용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쉽게 따라하고 실천하기 쉬운 범도민 자율실천운동 방안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4]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 홈페이지(www.gg.go.kr) 미세먼지 아이디어 응모 접수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 1명 등 12명을 선정해 도지사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5] 김건 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의 실천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2) 글에서 단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글은 단순히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장들이 모여 글의 중간 조직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단락들이 모여 전체 글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락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글이 될 수 있다.

참여를 독려했다.
[6] 도는 전문가, 도의회, 언론 의견, 도민 아이디어 공모 선정작 등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7] 수상작은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수립에 반영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교육자료 제작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위의 보도 자료는 모두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글이다. 그런데 모든 단락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은 하나의 소주제문과 여러 개의 뒷받침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글의 중간 조직체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단락은 아무리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2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소주제문과 뒷받침문장이 하나씩은 있어야 단락의 최소 구조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보도 자료를 보면 모든 단락이 한 문장으로만 제시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같은 성격을 지닌 정보들을 모아 제대로 된 단락 형식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1차 수정 보완을 하면 아래와 같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2] 도는 8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민 대상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3] 공모 내용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쉽게 따라하고 실천하기 쉬운 범도민 자율실천운동 방안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4] 도민이라면 누구나 도 홈페이지(www.gg.go.kr) 미세먼지 아이디어 응모 접수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 1명 등 12명을 선정해 도지사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7] 수상작은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수립에 반영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교육자료 제작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6] 도는 전문가, 도의회, 언론 의견, 도민 아이디어 공모 선정작 등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5] 김건 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의 실천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위와 같이 정리를 하면, 첫 단락은 개관 내용, 둘째 단락은 구체적인 공모 내용, 셋째 단락은 참여 방법 및 수상 안내, 넷째 단락에서는 담당자 소감, 다섯째 단락에서는 도의 대책 수립 계획 등으로 다소 정리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리만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둘째 단락이 여전히 한 문장 단락 형식이다. 소주제를 제시했으면 뒷받침 내용이 있어야 제대로 된 단락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공모 내용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등의 뒷받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셋째 단락도 한 문장 단락 형식인데, 단락 전개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문제가 많으므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셋째 단락에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이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참가 자격 - 도민

(2) 참가 방법 - 배너
(3) 수상 계획- 12명 선정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1)과 (2)는 크게 보면 참가 방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할 수 있다. (3)은 이질적인 내용이므로 새로운 단락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뒷받침 내용이 없는 단락들이 되어 그 부분에 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뒷받침 내용들을 추가하여 온전한 단락의 모습을 갖추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단락의 경우는 대책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단락인데, 단락 전개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다. 넷째 단락을 이루고 있는 두 문장이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문장이 하나의 목표(소주제)를 지향하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단락은 담당자의 소감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한 문장 단락 형식이어서 문제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서, 문장을 나누어 주거나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약간의 수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8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민 대상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
> 공모 내용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쉽게 따라하고 실천하기 쉬운 범도민 자율실천운동 방안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가령 트렁크 비우고 운전하기, 급정거 하지 않기 등 시민이 직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쉽게 따라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제안하면 된다.
>
> 참가자에게는 최우수상 1명 등 12명을 선정해 도지사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을 비롯하여, 우수상 x명, ... 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은 xxxx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수상작은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수립에 반영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교육자료 제작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
>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도 홈페이지(www.gg.go.kr) 미세먼지 아이디어 응모 접수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 도는 전문가, 도의회, 언론 의견, 도민 아이디어 공모 선정작 등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의 실천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위의 내용은 최소한의 뒷받침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수정 보완에는 한계가 있어서 완벽한 수정 보완은 불가능하다. 원문이 정보도 부족하고 단락 전개에도 문제가 많은 글이어서 수정 보완이 쉽지 않은 것이다.

어떻든 위와 같은 정도라도 그 전체 구성이나 단락 전개가 원문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다. 위 수정 보완 글의 전체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서두: 공모전 개요

(2) 본문1: 공모 내용 소개
(3) 본문2: 수상 관련 정보 소개
(4) 본문3: 참가 방안 소개
(5) 결말: 향후 계획 및 담당자 소감 인용

각 단락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정보들이 체계적이고 순리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단락의 전개 양상도 하나의 소주제문과 그에 적합한 뒷받침 내용들로 잘 구성되고 있다. 일부 단락의 소주제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각 단락들이 소주제와 뒷받침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전한 단락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도 자료의 문제점을 표기, 문장, 글의 구성 및 단락 전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실, 앞서 살핀 문제점들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수사적인 전문 영역도 아니고, 보도 자료라는 특수 유형의 문서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도 아니다. 일반 글쓰기에서도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핀 결과이다. 글이라면 글의 목적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한 결과이다.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좀더 효과적인 표현법과 같은 사항에 관한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살핀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잘 준수해도 아주 좋은 보도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경기도 보도 자료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언어 사용 실태를 검토해 보았다. 표기법이나 문장 사용, 글의 구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보도 자료에서는 띄어쓰기나 문장, 글의 구성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이상적인 보도 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언을 덧붙이기로 한다. 우선, 표기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말이 붙여 써야 하는 합성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령 “학교교육”과 같은 붙여 써야 할 것인지 띄어 써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학교교육”이 “학교”와 “교육”이라는 말의 단순한 결합인지, 아니면 특화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는 이에 따라서도 각기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단순한 의미의 결합이라면 띄어 써야 하고 새로운 의미 획득이라면 붙여 써야 하는데, 판단이 쉽지 않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전이다. 사전 검색을 해서 표제어로 있으면 합성어로 인정된 것이니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글을 쓸 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창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을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둘째로 평소에 맞춤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들을 습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맞춤법 규정이 많기도 하거니와 예외 규정 등이 많아 이를 완전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문서를 작성하다가 알쏭달쏭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마다 해당 맞춤법 규정을 찾아서 관련 규정을 확실히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전산망에 검색을 해보면 관련 규정이나 관련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어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외국어나 전문용어보다는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외국어의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 있는 순화어 찾기 정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외국어나 전문용어에 관하여 적절한 우리말 순화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하면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문장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문장을 짧게 쓰는 것이 좋다.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주술 관계 등이 복잡해져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장을 짧게 쓰면 오류 가능성도 줄어들 뿐 아니라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용이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문장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문서 작성 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다. 소리를 내서 읽다가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문장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낭독이 안 되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면 된다.

지금까지 어휘와 문장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살폈다. 이제 글의 구성 및 단락의 오류 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보기로 한다.

글의 구성과 단락 전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고를 완성한 후에 다듬어쓰기를 철저히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사실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는 문장들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글의 구성이나 단락 전개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초고를 작성한 후 다시 읽고 고쳐쓰는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을 수정 보완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함께 묶어서 단락을 제대로 전개하고 그 단락들을 순리적으로 배열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상적인 글의 구성과 단락의 전개를 위하여 초고를 완성한 후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글의 구성
- 중복이나 누락된 내용은 없는가?
- 글을 이루는 각 단락의 내용이 전체 주제와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내용은 없는가?
- 단락의 배열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단락 전개
- 하나의 소주제(단락의 주제)와 그에 대한 뒷받침 내용으로 단락 전개가 이루어졌는가? (2개 이상의 소주제가 있거나 뒷받침 내용이 없으면 잘못된 단락 전개임.)
- 소주제와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뒷받침 내용은 없는가?
- 소주제와 뒷받침 내용들이 순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 단락의 내용이 소주제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앞에서 본 것처럼 경기도 보도 자료의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해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견된다. 소소하게는 표기법 오류에서부터 잘못된 문장 사용, 글의 구성과 단락 전개의 문제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과적으로 소통성과 정확성에 악영향을 주어 보도 자료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보도 자료는 단순한 정보 기록이나 전달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이 국민이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따라서 보도 자료 작성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체 토의

경기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어문화원의 협력, 발전 방안

1

전체 토의 I

<한국어 문화원 협조 요청 사항>

○ 단기

(1) 차년도 경기도 국어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

(예1) 공공 언어 개선 사업(간판/안내판, 보도자료, 누리집, 공문 및 정책 용어 등)

(예2) 공무원 연수(국어 기초 소양, 공문 작성, 보도 자료 작성, 온라인 답글 작성 등)

(예3) 경기도민을 위한 교육(소외계층 교육, 직업 별 교육, 외국인을 위한 교육 등)

(2) 한글날 기념 행사 실시

(예) 백일장, 초청 강연, 시 이어 쓰기, 국어 순화 경시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독후감 쓰기 대회, 체험 사례 발표 대회, 우리말 사랑 운동 등

○ 장기

-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

(1) 국어책임관으로서의 소명 의식, (2) 원활한 정보 교환

- 경기 지역의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한 정기 예산 확보

2

전체 토의 2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을 위한 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 지자체의 정부 합동 평가 사업을 한국어문화원이 지원
- 한국어문화원 기본 운영 사업 계획 시 지자체 의견 수렴

○ 지자체와 한국어문화원의 공동 사업 수행
- 지자체와 한국어문화원이 공동 기획 및 지원으로 사업 수행

○ 지자체 사업을 한국어문화원에 용역 위탁
- 지자체의 사업을 전문 기관인 한국어문화원에 위탁

3

3

3